

## 성찰언어의 교육 필요성과 유형

이성영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2022년도 춘천교육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으로, 제76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2022.4.1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성찰언어의 개념과 교육 필요성
- III. 성찰언어의 유형
- IV. 맺음말

## I. 머리말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국어능력이며, 따라서 국어교육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한 텍스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Arendt, 1963/2006)이라는 책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한다.

이 책은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에 대한 책이다.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기획하고 수행한 책임자로서, 종전 후 아르헨티나로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람이다. 이 책은 그 재판을 참관했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이야기형 보고서 형식으로 『뉴요커』라는 교양잡지에 기사로 실었던 것들을 모아 나중에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와 함께 당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라는 거악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괴물 같은 악인일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주변 보통의 이웃들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수용소로의 유대인 이송을 단지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였을 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생각해 보지 않은 잘못만 있다는 것이다. 곧 악은 괴물 같은 모습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음(thoughtlessness)’처럼 평범한 얼굴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아이히만이 존재하고, 따라서 누구라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 위 책의 맥락으로 말하면, 국어교육은 단연코 아이히만 되기를 거부하고 아렌트 되기를 지향해야 한다. 아이히만처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렌트처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야기하는 언어(‘악의 평범성’과 같은 개념어 혹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같은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지향해야 한다. 아이히만과 아렌트의 차이는 ‘성찰’이다. 아이히만의 ‘아무 생각 없음’은 그가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 아무런 성찰이 없었다. 반면에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과 홀로코스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자기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악마와 천사가 별개 존재인 것처럼 악인과 선인도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연루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 통로는 성찰이다. 성찰과 그 결과의 텍스트화를 통해서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찰은 개인의 행복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만’일 것이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욕망의 뿌리는 일찍이 진화인류학이 밝힌 것처럼, 생존과 번식의 욕구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의식이 발달하면서<sup>1)</sup>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욕망하기 시작했다. 재물욕, 권력

---

1) 사회화나 의식의 발달은 언어의 사용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욕, 명예욕 등이 그 예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과욕 혹은 탐욕이라고 부른다. 이 욕망들은 높기만 한데 현재 나의 상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므로 불만스럽고,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의식의 발달과 더불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를 넘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기억의 상당수는 후회할 일이며, 미래 상상의 많은 부분은 걱정거리라는 점이다. 인간이 불행한 또 다른 이유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현실에 대한 불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탈출로 중의 하나가 성찰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불만(후회, 걱정)스러운 일인지, 그 요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 더 행복한 삶으로 다가갈 수 있다.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행복 역량이라고 한다면, 행복 역량의 중심에는 성찰이 놓일 수밖에 없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더 직접적으로 자기는 언제 행복(불행)한지 등에 대한 성찰이 행복한 삶에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행복이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양태로서의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무지나 기만에 의한 행복이 아닌지, 사회적 도덕성에 위배되는 행복은 아닌지,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복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sup>2)</sup>

이 글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그 구성원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요체 중의 하나가 성찰이라고 보고, 성찰언어를 왜 교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찰언어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바람직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는 황규호(2017: 5), 자기성찰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황주연(2011)을 참고할 수 있다. 행복이 재미나 쾌락과 같은 순간적인 기분뿐 아니라 의미와 품격을 추구하는 삶의 양태와도 관련된다는 점은 최인철(2018)에 잘 드러나 있다.

## II. 성찰언어의 개념과 교육 필요성

### 1. 개념

성찰언어의 개념을 알아보려면 먼저 성찰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겠다. ‘성찰’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첫 번째 뜻풀이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일’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성하고 살피는 일이 성찰이며 그 대상은 자기의 마음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반성하고 살피는 일 또한 마음의 작용이므로, 성찰이란 단순화하면 자기 마음에 대한 마음이다. 이처럼 성찰은 마음에 대한 마음이라는 메타성을 그 본질로 한다.<sup>3)</sup>

그런데 성찰의 대상이 꼭 자기 마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것 같다. 당장 ‘표준국어대사전’의 두 번째 뜻풀이는 ‘고해 성사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는 일’로 제시되어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 중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언행으로 지은 것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기 언행 또한 성찰 대상이 된다.

이처럼 성찰은 자신의 마음이나 언행, 곧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지만, 그 유발 요인이 반드시 자기 자신일 필요는 없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지만 그 출발은 외적 대상인 경우도 많다. ‘표준국어대사전’ 첫 번째 뜻의 용례 중에는 ‘사자(死者)의 무덤을 찾는 것은 사자를 애도하는 의미보다 자기성찰을 위한 행위다.’가 실려 있는데, 이 문장에 함의된 성찰의 유발 요인은 ‘타인의 죽음’이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성찰의 전형적인 모

---

3) 메타성에 주목하면 성찰의 구조는 {나(I) → [나(me) → 객체]}로 나타낼 수 있다(김홍중, 2007: 190). 이에 따르면 성찰에는 서로 구별되는 2가지 자아‘나’가 존재한다. 첫 번째 자아는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기 ‘나(me)’이며, 두 번째 자아는 그러한 경험을 성찰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나(I)’이다. 전자를 경험(1차) 주체, 후자를 성찰(2차) 주체라 할 수 있겠다.

습이다. 이른바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세계에 대해 숙고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던지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흔히 전자를 탐구라고 하고 후자는 성찰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해가 뜨고 지는 현상 자체의 원리(지구의 자전)에 대한 숙고는 탐구지만, 일출과 일몰의 변함없음에 주목하여 자기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이후 삶의 지침으로 삼는 사고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찰이 된다.<sup>4)</sup> 이처럼 성찰은 자기 마음과 언행을 반성하여 살피는 일이지만, 그러한 성찰을 유발하는 요인은 자기 밖의 외적 세계일 수도 있다.<sup>5)</sup>

성찰의 개념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찰 대상인 ‘자기’의 범위다. 앞에서 성찰 대상은 성찰 주체인 자기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기의 범위가 단수(나)가 아닌 복수(우리), 다시 말해 자신을 포함한 집단이나 조직,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찰해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타자화하지 않고 자기화하는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

이제 이 글의 주제어인 성찰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결론을 먼저 말하면 성찰언어란 성찰을 수행하는 과정에 작용하거나 그 결과로서 생산된 언어를 뜻한다. 우선 성찰언어는 성찰 결과를 언어화한 것을 뜻할 수 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아렌트의 성찰 결과를 담고 있는 성찰언어의 한 사례 텍스트다. 성찰 결과물로서의 성찰언어는 흔히 일기나 일지, 반성문, 참

4)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활연관통(豁然貫通)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격물치지와 활연관통을 통한 성리학의 공부법에 대해서는 이용민·이승철(2017: 603-606) 참고.

5) 성찰의 유발 요인과 관련하여 국어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텍스트다. 텍스트 읽기를 통한 자기 이해(가령, “저런 처지에 놓이면 나도 저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겠구나!”)나 삶의 총체적 체험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바탕에 성찰이 놓여 있을 것이다. 어쨌든 성찰을 유발하는 텍스트들도 그것이 외적 세계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학교육 분야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성찰과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읽기교육 분야에서는 그러지 못했는데, 김도남(2007)이 예외다.

회록, 좌우명뿐 아니라 수필이나 생활문, 시(시조), 소설 등과 같은 문학 장르로도 구현될 수 있다.

성찰언어는 또한 성찰이라는 사고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내적 언어를 뜻하기도 한다. 아렌트의 성찰적 사고는 언어와 더불어 시작하여 언어로 다듬어지고 언어로 완결된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성찰 결과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렌트는 언어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을 뿐 아니라, 어떤 형식이 더 많은 독자에게 더 큰 설득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술논문이 아닌 이야기형 보고서 형식을 선택한 것이다. 성찰적 사고와 그 과정에 작용하는 언어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사고를 흔히 내언(內言)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떠올리는 질문이나 생각들의 상당수는 성찰언어다. 가령,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너 왜 나잇값도 못 하니?’, ‘너 지식인 맞아?’ 하며 자문하는 것들이 그 예다.

성찰언어는 성찰적 사고의 과정과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 생활의 지침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생활 지침으로서의 성찰언어는 스스로의 성찰 결과를 언어화된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다른 누군가의 성찰 결과였지만 그것이 나의 성찰을 자극하여 내 삶의 지침으로 채용된 것일 수도 있다. 굳이 좌우명이라고 하여 써 붙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아 늘 기억하고 실천하려 애쓰는 문장들이 이에 해당한다.<sup>6)</sup>

이처럼 언어와 더불어 성찰을 수행하고, 성찰의 결과를 언어화하여 삶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하는 삶, 성찰과 함께 하는 언어생활을 성찰언어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7)</sup> 그리고 성찰언어의 범위를 넓혀서 성찰 감수성이나

---

6) 필자는 남 앞에 나서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어서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정호승, 2006: 228-233)라는 문장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려 애써 보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

7) 성찰언어생활의 한 범례를 소개한다: 서암(瑞巖, 850-910, 당나라 승려)은 매일 자신에게 “주인공!” 하고 부른 후 스스로 “네.”라고 답했다. 이내 “깨어 있어야 하네!” “네.”



태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아가 성찰을 통해 자기 내면을 살찌우고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적·정의적 소양이라고 본다면 ‘성찰 리터러시’라는 이름도 괜찮을 것이다.

성찰적 사고와 성찰언어는 동전의 양면이다. 아렌트도 악의 평범성이 사고 문제일 뿐 아니라 언어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본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sup>8)</sup>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Arendt, 1963/2006: 349)로 끝맺고 있는데, ‘사고’와 나란히 ‘말’을 병치한 점이 의미심장하다. 악의 평범성은 ‘성찰적 사고 없음’뿐 아니라 ‘성찰언어 없음’을 먹고 산다는 뜻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아이히만이 악의 평범성의 포로가 된 것은 그에게 성찰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최종 해결책’, ‘재정착’과 같은 위장언어만 있었을 뿐이며, 그것이 ‘학살’을 위해 ‘수용소로 보내는 것’을 뜻하고 ‘그 일을 바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성찰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 2. 교육 필요성

### 1) 인간적 성장

이제 국어교육에서 성찰언어<sup>9)</sup> 교육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자. 먼저 국어교육은 교육 일반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은 그 특수성 이전에 보편성 조건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초·중등 학교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학습자들의 인간적 성장일 것이다. 인간적

---

“언제라도 남에게 속아서는 아니 되네!” “네, 네.”라며 자문자답했다.(신도현·윤나래, 2018: 21)

8) 밑줄 필자.

9) 성찰과 성찰언어가 동전의 양면이므로, 이하에서는 맥락에 따라 이 둘을 적절히 호환하여 사용한다.

성장이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그 요체 중의 하나는 성찰일 것이다.<sup>10)</sup> 성찰이 있어야 자기의 현 상태를 확인하여 개선 방향을 그려볼 수 있고, 성찰을 통해야만 표피적 지식이나 기술을 넘어서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비유하자면 성찰은 지혜와 덕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마음밭[心田]의 거름이다. 성찰언어 혹은 성찰 리터러시가 풍부한 마음밭은 기름져서 작물이 잘 자라 열매를 맺는다.

성찰이 인간적 성장의 요체라는 점은 여러 현인들의 어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거나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앎.’이라고 한 것은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운 말이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는 예수의 말도 타인에 대한 단죄 이전에 자기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저 유명한 데카르트의 코기토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도 성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신을 대상화하여 생각하는 일이 바로 성찰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성리학이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성찰은 빠지지 않는다. 성리학에서는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의 칠정(七情)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과 측은·수오·사양·시비지심(四端)의 함양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로 나아가게 하는 수양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수양에는 성찰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조금호, 2007: 39-40). 불교에서도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선문답(禪問答)이나 화두참선(話頭參禪) 같은 것을 강조하는데, 이 또한 성찰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10) 인간적 성장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는 도덕과일 것이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의 핵심 개념이 ‘도덕함’이며, 도덕함이란 도(道)를 탐구하고 덕(德)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양혜성(2020: 208-209) 참고.

11) 교육이 근대적 과학화를 추구하면서 총체성을 지닌 지혜를 포기하고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전되어 버렸다는 논의는 오인택(2001: 7-8) 참고.

인간은 모든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자기생성체(auto-poiesis)다.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외적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그 삶의 경험은 대개 반복된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누적되는 경험들이 단순반복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제가 바로 성찰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물음과 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것이다.<sup>12)</sup>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찰을 통해 조금씩 차이를 생성해 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

성장은 흔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타자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성찰이 성장에서 특히 중요한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성찰이란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 내적 대화를 통해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일이다.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자질이나 취향, 은폐되어 있던 못난 구석들을 발견하여 발휘하거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찰을 통해 주체와 객체를 오가는 경험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자기다움을 키우는 일에도 성찰이 중요하다. 인간은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규준과 같은 외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외적 조건을 모두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수용 여부나 정도뿐 아니라 반응도 다르다. 각 사람의 자기다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자기다움인지 알 수 없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성찰 없이는 자기 내면을

12) ‘차이 생성’이 들뢰즈식의 용어라면, 이에 대한 아렌트식 용어는 ‘새롭게 시작하는 탄생’(박은주, 2021: 72)이다. 차이를 생성하거나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수다. 이런 점에서 개별 학습자들 스스로의 내적 생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특히 성찰의 교육적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알기 어렵다.<sup>13)</sup> 국어교육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자기다운 빛깔로 생각하고 자기다운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2) 사회적 요구

교육은 사회적 기획행위다. 교육은 자족 체계가 아니라 사회라는 생태적 체계 속에서 한 요소로 기능하며, 따라서 교육은 사회 변화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최근 사회 변화가 참으로 빠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다. 이에 따라 “감각(AR, VR), 기억(빅데이터), 추론(AI), 사회적·물리적 연결(Wifi·IoT), 운동(로보틱스) 등 인간의 거의 모든 능력이 외부화되고 있다(김창원, 2019: 73).” 또 기술 발달과 더불어 이념과 제도, 규범 등과 같은 이른바 근대적 문화 자본들이 그 권위를 잃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양상은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기계에게 외주화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최후 보루가 성찰이며, 해체 혹은 탈진된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자기성찰이기 때문이다. 성찰이야말로 인간다움과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무기다.<sup>14)</sup>

요즘 심각한 사회적 문제 현상들을 목도한다. 이른바 내로남불, 편 가르기, 적화 증후군, 확증편향<sup>15)</sup>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현상의 공통점은 성찰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이다. 이 현상들을 일으키는 주체는 필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이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언가를

---

13) “자신을 관찰하고 가늠해보고 꿈꾸고 변형시키는 것, 거울을 접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을 억눌러온 금기들을 넘어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동시키는 것이다 (Melchior-bonnet, 1994/2001: 189).” 이 문장은 르네상스 시대 주체 의식이나 인본주의 사상의 출현이 거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4) 현대에서 주체 정체성이 절편화, 희박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정우(2009: 193) 참고.

15) 성찰을 통해 확증편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의는 양해성(2020: 217-220) 참고.

놓쳐왔는데 그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반증이다.

근대 이후 우리 교육은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사상적 바탕 위에서 건전한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비판적 주체 양성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의도치 못한 부작용도 일으켰다.<sup>16)</sup> 그 부작용이란 바로 비판 대상을 주체인 자신과 분리하고 문제의 소지를 언제나 자기가 아닌 타자에게서 찾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 비방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각종 SNS에서 발견되는 공격적 댓글들이 그 사례다.

비판은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꼭 필요한 소금이다. 소금은 상처나 오염된 곳을 소독하지만, 그 과정은 아프다. 그래서 비판이 넘치는 곳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판할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비판 거리들이 자정 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다. 성찰은 갈등 없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성찰은 빛이다. 빛처럼 어두운 곳을 밝혀 드러냄으로써 부패를 미연에 예방한다. 성찰은 비판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데에도 필요하다. 내가 행한 비판의 합리성 여부는 성찰을 통해 점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비판언어뿐 아니라 성찰언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타자에 대한 비판적 주체되기와 더불어 자아를 향한 성찰적 주체되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비판언어 교육을 통해서 버리어 온 칼날을 자신에게도 들이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오만이나 무지, 미흡함을 깨달을 수 있고, 성장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

16) 비판적 읽기 교육의 부작용과 공감적 읽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성영(2021) 참고.

### 3) 언어적 소통의 한계

이제 국어교육의 특수성에 눈을 돌려보자. 국어교육의 특수성은 국어, 즉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 국어교육은 국어라는 언어를 통한 의미 구성과 소통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런데 의미와 언어 사이에는 편차가 있어 문제다. 총체적인 의미를 언어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기호가 갖는 특성 중 하나가 분절성이다. 가령, 물리적 세계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의 크기는 연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도랑, 시내, 강 등 소수의 언어기호로 분절하여 나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절성을 지닌 언어로 총체성을 지닌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태생적 한계다. 따라서 언어만으로 대상이나 그에 대한 생각을 완벽하게 재현(표현)할 수는 없다. 보이는 대상이나 떠오른 생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 언어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고,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구사하는 사람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언어로 표현·전달할 수 있는 의미는 빙산의 일각이다. 따라서 수면 밑에 잠겨 보이지 않는 의미는 재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성찰이 필요하다. 앞의 각주 7)에서 소개한 서암의 ‘주인공’이란 말을 생각해 보자. 주인공이라는 말의 사전적 뜻을 정확히 떠올린다고 해서 그 의미를 온전히 재구한 것은 아니다. 자기의 과거 생활 전체를 소환하고 각 장면에서 가졌던 후회나 자책의 감정뿐 아니라 각오나 다짐과 같은 정서가 결합되어 자기 몸과 마음 전체를 통해 그 의미가 각성될 때 비로소 그 말의 총체적 의미가 다가온다.<sup>17)</sup> 이 과정에는 자신의 생애사적 경험과 그에 대한 반성, 다짐 등이 작용하고, 따라서 성찰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소통 맥락도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의 하나다. 흔히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은 도판 은유로 이해된다. 전달자의 의미가 매체라는 통로를 통해 그대로 수신자에게 이송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유는 거부된 지 오래다. 소통

---

17) 읽기로 말하면, 색독(色讀)을 넘어 체독(體讀)에 이른 것이다.

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는 기억과 기대지평이 다를 뿐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다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의해 생산된 언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를 재구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성찰이 필요하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짐작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인간 일반에 대한 이해 또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할 도리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8)</sup>

결국 언어를 통한 의미 구성과 소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모든 텍스트는 언어기호 자체의 한계나 참여자들 서로 간의 기대지평 차이로 인해 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빈 공간은 서로 다르게 매꿔진다. 곧 모든 의미는 주체들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텍스트는 다공성(多空性)을 지니며, 그것이 다성성(多聲性)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것은 규범적인 언어기호 속에 뭉뚱그려진 관습적 의미를 각자 자기 체험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존재적 의미로 되살리는 과정이고, 생산자와 수용자의 의미가 서로 엇갈리는 과정이기도 하고, 혹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성찰이 개입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니 염화미소(拈華微笑)니 하는 말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도, 언어적 소통의 한계와 그것을 뛰어넘는 성찰적 깨달음의 가능성일 것이다.

#### 4)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성찰

지금까지 국어교육이 성찰언어에 주목하여야 하는 까닭을 인간적 성장, 사회적 요구, 언어적 소통의 한계 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층위를 달리해서 현재 국어교육에서는 성찰언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행히도 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 7)에서 성찰언어는 누락되어 있지 않다.

18) 서로의 기대지평을 알 수 없는 이중 우연성(double contingency) 상황에서 소통 패러독스가 발생하며, 성찰성을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의는 김무규(2012) 참고.

우선 국어과를 통해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다. 그리고 성취기준에도 성찰이 등장하는데, ‘국어’ 과목에는 다음 3개가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ㄱ).<sup>19)</sup>

[9국05-10]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10국01-06]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10국03-03]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성찰 관련 성취기준이 9학년에 처음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생을 중심으로 하는 저학년은 발달 특성상 성찰언어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sup>20)</sup> 그러나 필자는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성찰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초등생 대상의 성공적인 연구 사례(박세원, 2009: 71-77; 이연수, 2011 등)가 없지 않고, ‘삶을 위한 글 쓰기’ 등의 이름 아래 수행된 수많은 초등생 대상 교육 실천들과,<sup>21)</sup>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어릴 때 썼던 일기들을 통해 초등생들도 그 나름의 수준에서 성찰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과의 사례도 참고가 된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은 초등과 중등이 별개로

19)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들에 제시된 성찰 관련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화작03-09]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

[12독서03-01]인간에 대한 성찰

[12언매04-01]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한 성찰

[12언매04-02]자신의 매체생활에 대한 성찰

[12문학04-01]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

[12실국05-02]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자아 성찰

20) 연구 경향도 마찬가지다. 성찰언어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성찰적 글쓰기인데, 이에 대한 연구물의 대다수는 대학생이 대상이다(고혜원, 2014; 이숙정·신정혜, 2014; 한래희, 2014 등)

21) 대표적인 사례로 이오덕(2017)을 들 수 있다.



나뉘어 서술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내용 체계’의 ‘기능’에 ‘윤리적 성찰 능력’이 명시되어 있고, 그 하위 항목에는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뿐 아니라 ‘심미적 감수성 기르기’도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5: 7). 초등 도덕과에서는 윤리성뿐 아니라 심미성 성찰까지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도덕과에서 가능한 것이 국어과에서 불가능할 까닭이 없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이름은 성찰로 같지만 그 구체적인 성격은 영역(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문법이나 매체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매체)생활에 대한 반성적 성격이 강한 성찰인데 비해, 문학이나 읽기 및 쓰기 쪽에서는 자신이나 인간의 삶 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어생활에 대해서도 반성뿐 아니라 자기 취향이나 관심, 개성, 소질 등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고, 역으로 문학이나 읽기, 쓰기에서도 자기나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문학적 삶에 대한 반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편 교육과정에서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어교육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언어수행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점검·조정하는 유형의 성찰이다.

이처럼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성찰언어는 그 성격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국어교육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가령 성찰을 언어활동에 대한 메타적 성격의 사고(박성석, 2018: 93)로 규정하거나 대상을 통한 자기 발견과 이해(최홍원, 2008: 30)로 보는 것은 연구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찰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성찰이 지니는 다양한 교육적 함의를 스스로 좁히는 일이다. 역으로 기존에 메타인지 혹은 점검·조정하기 등으로 불리던 것을 성찰이라는 이름 아래로 포괄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점이 있다. 메타인지는 용어부터 학습자들에게 난해한 감이 있고 점검·조정하기는 점검·조정의 기준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에, 성찰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부각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성찰언어가 다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살

펴보았다. 정리하면, 초등과 중등의 학교급을 관통하고 영역(과목)별로 다소 성격이 다른 여러 성찰 양상들을 모두 아우르는 성찰언어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성찰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첫걸음으로서 성찰언어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겠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 III. 성찰언어의 유형

#### 1. 분류 기준

성찰의 유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sup>22)</sup> 성찰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성찰 시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찰은 수행 도중에 수행 방법이나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행 중 성찰(reflection in action)과 수행을 마친 후 그 결과물의 잘잘못을 성찰하는 수행 후 성찰(reflection on action)로 나뉜다.<sup>23)</sup> 성찰을 시점에 따라 둘로 나누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행 중 성찰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수행 도중에서 그동안의 수행을 성찰하여 문제를 포착하고 그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은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행 중 성찰을 통한 성공 경험의 누적은 성찰 태도를 강화하고 성찰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sup>24)</sup>

---

22) Dewey로부터 시작하는 성찰에 대한 관심과 여러 유형 분류를 정리한 내용은 민병곤·박성석(2017: 309-312)을 참고할 수 있다.

23) 수행 중 성찰과 수행 후 성찰로 처음 분류한 이는 Schön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민병곤·박성석(2017: 310), 박영민·최숙기(2008: 139-1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보면, 수행 중 성찰과 수행 후 성찰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모든 행위

또 다른 분류법은 성찰의 대상을 기준으로 수행 성찰과 전제 성찰로 나누는 것이다. 수행 성찰이란 수행 행위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전략 및 그 결과를 성찰하는 것이고, 전제 성찰은 그러한 행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들을 성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혹은 전제라는 것은 주체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 가치관, 판단이나 행위의 기준 등과 같은 것으로서, 그 추상성·비직접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성찰은 수행 성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더 높다. 그런데 이 전제 성찰이라는 것은 성찰의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성찰 주체가 지니는 가정이나 전제는 그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한 것으로서 그 뿌리는 주체의 외부, 곧 사회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믿음이나 가치관, 규준 등과 같은 것은 내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생활 경험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 내면화한 것으로, 그것은 사회에서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제 성찰은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혹은 타자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개념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성찰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주체 외부의 사회나 타자에 대한 숙고는 흔히 성찰이 아닌 탐구나 비판으로 불려 왔다. 성찰이 탐구나 비판과 겹치며, 이들 사이의 개념적 구분이 선명하지 않다는 예증이다. 어쨌든 숙고 대상이 되는 사회나 타자가 순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나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그것이 나 혹은 우리의 문제가 되는 한 그것은 성찰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sup>25)</sup>

그런데 성찰 시점이나 대상을 기준으로 한 이들 분류법은 그 나름의 장

---

는 하위 구성 행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다. 따라서 수행 중 성찰은 전체 행위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일부 하위 행위는 완료된 시점에서의 성찰로 볼 수 있고, 결국 수행 중 성찰은 그 하위 행위에 대한 수행 후 성찰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나의 단위 행위에 대한 수행 후 성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 있을 후행하는 유사 행위에 피드백 된다는 점에서 수행 중 성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5) 성찰 대상이 주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나 관계로 확장된다는 것,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자기성찰보다 안녕감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황주연(2011: 17-19, 101-102) 참고.

점이 있지만, 이를 성찰언어 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렵다. 그 어려움의 핵심은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찰의 시점에 따라 수행 중 성찰과 수행 후 성찰로 나누는 방안, 그리고 성찰의 대상에 따라 수행 성찰과 전제 성찰로 나누는 방안은, 둘 모두 성찰 행위와는 별개로 존재하여 성찰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1차 수행을 전제하고 있다. 예컨대 글쓰기에 대한 성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찰 주체는 글쓰기를 수행하는 도중에서 성찰을 할 수도 있고 다 마친 다음 성찰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이나 결과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 성찰과 글쓰기는 말하기와는 달라야 한다는 믿음에 대한 전제 성찰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성찰에는 이런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등산을 가서 계곡에서 쉬다가 문득 흘러가는 물을 보고는, ‘아, 물은 참 예외도 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구나. - 만물은 모두 그 고유한 성질이 있구나. - 나(인간)의 본성은 뭘까?’와 같은 생각을 펼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성찰의 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글쓰기에 대한 성찰과는 달리 성찰과 구별되는 1차 수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없고, 따라서 위 분류법 아래에서는 어디에도 자기 자리가 없게 된다.

포괄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적 유용성도 지니는 분류 기준은 성찰 계기가 아닌가 한다. 어떤 경우에 성찰이 작동하는가 혹은 성찰을 왜 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면, 성찰이 일어나는 모든 양상을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성찰 계기에 주목하는 것은 성찰언어 학습의 필요성 인식이나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 성찰이 언제 왜 필요한지와 관련되는 정보가 이미 분류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찰 계기는 그 자체가 바로 인간적 성장의 계기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성찰의 계기라고 하지만, 그 출발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점은 쉽지 않다. 모든 인간 사고는 외적 자극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적 자극에서 비롯된 사고가 자기 관련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찰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정의에 충

실하여 성찰 주체의 마음, 그중에서도 정서가 성찰의 계기라고 본다. 정서는 “소중함(가치)의 지각에 대한 지적 반응”(Nussbaum, 2003/2015: 26)으로서, 가치 지각향성을 갖는 교육과 잘 호응하기 때문이다. 성찰은 가치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서의 정서가 부정적일 때, 곧 불쾌(不快)할 때 발생한다. 불쾌한 정서를 유발하는 가치 차원의 요인은 크게 윤리적 가치, 인식론적 가치, 심미적 가치 3가지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정서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정서는 부끄러움(수치심)과 의아함(의구심)과 미흡함(불만족)이다. 부끄럽거나 의아하거나 미흡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성찰이 발생한다.<sup>26)</sup> 이 3가지 정서에서 비롯되는 성찰을 각각 반성형 성찰, 통찰형 성찰, 수행형 성찰로 부르기로 한다.

## 2. 유형

### 1) 반성형 성찰

반성형 성찰의 계기는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주체 자신의 마음(동기나 의도, 욕구 등)이나 언행에 대해 반성하는 유형의 성찰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성찰은 “이건 아니잖아?” “내가 왜 그랬지?” 등과 같은 물음에서 출발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과정을 거쳐 성찰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부끄러움의 정서를 낳게 한 과거 마음이나 언행을 분석하여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성찰 유형이다.

반성형 성찰은 주로 과거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전에 일어난 일이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서 비롯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반성형 성찰은 역사학적 관심의 숙고와 유사하다.

26) 강서희(2021)는 성찰 계기로서의 정서에 주목하여, 문학교육에서 정서 성찰을 통한 윤리적 가치 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다.

반성형 성찰의 대상은 주체 자신의 과거 마음이나 언행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단발성 사건일 수도 있고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거시적인 이력이나 습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한 집단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 이념이나 문화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 일반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가능한 것이다.

반성형 성찰을 특징짓는 것은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다. 반성형 성찰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었는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와 같은 물음과 함께 진행되며, 반성형 성찰이 부끄러움과 연관되는 것도 자기 마음이나 언행을 그러한 물음에 대입할 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성형 성찰은 윤리적 가치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성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sup>27)</sup>

## 2) 통찰형 성찰

통찰형 성찰의 계기는 의아함이다. 어떤 대상에서 의구심이 생기고 그에 대해 생각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나 삶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유형의 성찰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성찰은 “이게 뭐지?” “이건 왜 이렇지?” 등과 같은 물음에서 출발하며, 뭐가 궁금한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등의 과정을 거쳐 성찰이 이루어진다. 반성형 성찰이 일정한 기준에 비추어 자기 언행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한 데 비해, 통찰형 성찰은 발견적 사고의 성격이 강하다. 의아함은 이전에는 몰랐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현상에서 발생하며, 의아함을 해소하는 과정이란 일종의 발견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소

---

27) 반성문이나 참회록 같은 글들이 주로 반성형 성찰과 관련된다. 그 밖에 일기나 수필(생화문) 등에도 이런 성찰이 담길 수 있다. 반성형 성찰 텍스트의 대표 사례로는 <참회록>을 비롯한 윤동주의 시들이 떠오른다.

질이나 능력, 기호나 취향, 성격이나 지향 등과 같은 자기 이해뿐 아니라 인간 일반의 본성이나 삶의 지혜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sup>28)</sup>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란 직접 관찰이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견주어 볼 다른 대상이 없다면 내성 그 자체만으로 자기 이해에 이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개의 통찰형 성찰은 외적 대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적 대상<sup>29)</sup>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자기와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그 결과로서 어떤 의미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대상이 자기에게 던지는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으로서, 일종의 격물치지형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sup>30)</sup>

통찰형 성찰은 새로운 삶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찰이라는 점에서 인식론적 가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종의 특성은 생각을 통해서 삶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통찰형 성찰은 인간적인 성장에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인문학적 주제라고 하는 것들, 가령 나는 누구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는가 등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은 주로 통찰형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통찰형 성찰은 자기 이해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본질,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통로가 된다.<sup>31)</sup>

28) 이연수(2011: 162-164)는 '반성적 성찰, 실존적 성찰, 탐구적 성찰, 대화적 성찰, 공감적 성찰'의 5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실존적 성찰'과 '탐구적 성찰'이 통찰형 성찰에 해당한다. '반성적 성찰'은 그대로 반성형 성찰에 해당되지만, '대화적 성찰'은 성찰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가깝기 때문에 분류 층위가 다르고, '공감적 성찰'은 성찰보다는 공감 쪽에서 다루는 것이 나아 보인다.

29) 외적 대상은 자연물이나 사회 현상뿐 아니라 텍스트도 포함된다. 민재원·구영산(2018: 82)에서는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는 원시성을 지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독자와 은폐된 가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는 독자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 두 유형의 독자 사유도 텍스트를 통해 자기 이해에 이르는 통찰형 성찰에 해당한다.

30) 이 유형의 성찰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는 최홍원(2008: 20-30) 참고.

31) 통찰형 성찰과 밀접한 고전 장르로는 시조나 설(說) 양식을 떠올릴 수 있고, 일기나 수필(생활문) 등에도 통찰형 성찰이 많이 담긴다. 현대 시 작품으로는 고은의 〈그 꽃〉이 생각

### 3) 수행형 성찰

수행형 성찰의 계기는 미흡함이다. 미흡함이란 도모 중인 어떤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다. 따라서 수행형 성찰은 “왜 만족스럽지 않지?” “더 나은 건 없나?”와 같은 물음과 더불어 진행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점이 미흡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과정을 거쳐 성찰이 이루어진다. 수행형 성찰은 국어교육의 특수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어능력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언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해당 활동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의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어활동의 수행 과정에서는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무엇을 화제로 삼아야 할지, 어떤 제목이 좋을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어떤 흐름이 더 깔끔하고 자연스러울지, 어떤 전개 방식이 주제를 더 잘 부각하겠는지, 어떤 말로 끝내야 여운을 남길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선택지들을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시행착오와 더불어 성찰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내가 알맞은 위치에서<sup>32)</sup> 적당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지, 내 목소리에 일관성이 있는지, 자기모순은 없는지, 내 말이 옳은 말인지, 상대를 배려하는 말인지 등에 대해 성찰해야 하고,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지, 무계획적으로 덤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과 같은 태도 차원에서 살피려야 한다. 이처럼 수행형 성찰은 언어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그 수행행위를 대상화하여 성찰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메타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수행형 성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행 중 성찰로 한정하고, 수행 후 성찰은 배제할 까닭이 없다. 수행이 끝난 후의 성찰도

---

난다.

32) 글쓰기에서 필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대해서는 장지혜(2020: 101-111) 참고. 이 논문은 글쓰기 과정을 형식적 텍스트화나 의미 전달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고 인식을 확장해 가는 과정, 독자의 성장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후 활동에 피드백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모든 성찰은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일어난 일(사고, 행위)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수행형 성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가치는 심미성이다. 미흡함을 해소하여 흡족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심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언어활동 결과물이 더 깔끔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참신하고, 더 통쾌하거나 시원하고, 더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고, 더 여운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안다. 심미성의 차이이며, 이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행형 성찰이다. 수행형 성찰은 주로 심미적 가치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문학적 관심과 겹친다. 이처럼 더 나은(멋진)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런 점에서 수행형 성찰은 인간적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통로가 된다.<sup>33)</sup>

### 3. 유형들의 관계와 위계

#### 1) 연접과 내포 관계

성찰의 세 유형은 일종의 전형(prototype)이다. 이들은 개념적으로 구별이 가능할 뿐, 실제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 연속되거나 구조적으로 서로 내포될 수 있다. 모든 행위는 이른바 복합체로서 관련 요인이 복잡할 뿐 아니라 인접 행위와 인과적으로 접속되기도 하고 더 큰 행위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행형 성찰은 그 안의 하위 과정으로 반성형 성찰이나 통찰형 성찰을 내포할 수 있다. 수행 도중 그때까지의 수행 방법이나 태도를 반성

---

33) 수행형 성찰은 그동안 국어교육학계에서 메타인지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읽기교육에서는 점검·조정하면서 읽기로, 쓰기에서는 메타작문이나 반성적 쓰기로, 화법교육에서는 대화 성찰 등의 이름으로 다루어 왔다.

할 수도 있고, 그때까지의 수행을 분석하여 더 나은 새 방안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행이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전체 과정을 반성할 수도 있고, 수행 방법이나 전략, 태도(근면, 인내, 도전성, 책임감) 등에 대한 자기 이해나 통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성형 성찰과 통찰형 성찰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반성에서 통찰로, 통찰에서 반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포될 수도 있다. 가령,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그치지 않고 울컥하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 친구에게 욕을 들은 경우, 욕을 먹을 만한 언행을 했다면 당연히 반성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러한 반성의 과정에서 욕먹을 만한 언행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형 성찰이 포함될 수도 있다.<sup>34)</sup> 이처럼 반성과 통찰은 서로 넘나든다. 반성(내가 왜 그랬지?)에서 자기 발견(내가 이런 사람이구나!)으로 넘어가거나, 반성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기준(도덕, 관습, 문화 등)에 대한 의문이 자기 나름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는 통찰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새로 발견한 기준으로 자기에 대한 재반성을 수행할 수도 있다.

성찰 유형들이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은 가치들도 서로 융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미흡함의 정서는 주로 심미성과 연관되지만, 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나 인식론적 차원에서 해명되지 않는 것도 미흡함이나 심미성과 무관할 수 없다. 또 윤리적 가치 판단에 활용되는 기준들은 대개 인식론적 통찰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며, 인식론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것을 모른 채 덮고 넘어가는 것은 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윤리적·인식론적·심미적 가치는 서로 중첩되며, 그 관련성을 강조하여 인문학적 가치라는 말로 통칭할 수 있다. 성찰언어 교육은 인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며,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이라 할 수

---

34) 욕의 정체나 기능, 대상과 전략 등 욕에 대한 통찰형 성찰의 백미는 김열규(1997)가 아닌가 한다.

있다.<sup>35)</sup>

## 2) 유형들의 위계

성찰언어를 교육 내용으로 삼아 가르치려면 유형들 사이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물론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성찰들 사이에도 상대적으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유형들끼리의 성격 비교를 통해 알맞은 도입 순서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도입 순서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복잡성 정도일 것이다. 복잡성을 기준으로 할 때, 수행형보다는 반성형과 통찰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다. 언어활동을 크게 의미화 과정과 언어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반성형과 통찰형은 주로 의미화 과정에 해당하는 반면 수행형은 의미화뿐 아니라 언어화 과정도 성찰 대상으로 포함되어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의미화 과정에서 주로 작용하는 두 성찰 유형 중에는 통찰형보다는 반성형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까닭은 우선 경험의 직접성 때문이다. 반성형은 대개 자기 자신이 직접 행한 구체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통찰형은 대개 외적 대상에 대한 관찰이나 텍스트 등을 통한 간접적 매개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성형 성찰은 판단 기준이 대개 사회적으로 미리 주어진다는 점에서도 직접성이 강하다. 성찰 주체는 주어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자기 언행에 대한 성찰을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통찰형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서 성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할뿐더러, 필요성이 드러난 경우에도 기존에는 몰랐던 것을 새로 발견해야 하므로 더 능동적이고 복잡한 사고가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 유형을 놓고 보면 반성형을 제일 먼저, 그다음에 통찰형을,

---

35) 인문학을 흔히 문학, 역사학, 철학의 셋으로 나누는데, 그 각 분야의 접근이 수행형 성찰, 반성형 성찰, 통찰형 성찰과 대응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인문학은 성찰의 학문이다.

마지막으로 수행형 성찰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행형 성찰은 그 구조나 성격이 반성형이나 통찰형에 비해 복잡하다. 우선 수행형 성찰에서는 시간 차원에서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 수행의 특정 시점에서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작부터 성찰 시점까지의 과거 수행에 대한 점검(monitoring)과 함께 미래 결과에 대한 기대나 예측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안을 찾아 조정(controlling)하는 사고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행형 성찰은 대개 반성형과 통찰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복잡성 정도가 더 높다. 수행형 성찰은 자신의 언어활동을 대상화하여 성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형 성찰에서는 지금까지의 수행에 어떤 미흡함이 있었는지를 찾아서 그에 대한 반성도 해야 하고, 더 나은 방안을 발견하기 위한 통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행형 성찰을 시점에 따라 수행 후 성찰과 수행 중 성찰로 나눈다면, 수행 후 성찰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행 후 성찰은 1차 수행활동이 종료된 상황이므로 메타행위인 성찰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수행 중 성찰은 1차 수행활동과 더불어 그에 대한 2차적인 성찰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행 후 성찰은 주로 완료된 언어활동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의 성격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수행 중 성찰은 그때까지의 수행에 대한 반성과 평가뿐 아니라 더 나은 방안을 발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에서도 복잡도와 난도가 더 높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수행 중 성찰일 것이다.

따라서 ‘반성형 성찰-통찰형 성찰-수행 후 성찰-수행 중 성찰’의 순서로 도입하는 것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면 그 복잡도나 난도는 역전될 수 있다. 가령, 머리보다는 몸 쓰는 일에 소질이 있다는 자기 발견의 통찰형 성찰보다 동물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반성형 성찰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루는 대상의 추상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난도가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이념이나 문화 등 추상적인 현상을 주제로

하는 수행 중 성찰 유형이 될 것이다.

#### IV. 맺음말

이 글은 성찰언어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한지, 성찰언어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찰언어란 성찰을 수행하는 과정에 작용하거나 그 결과로서 생산된 언어다. 성찰언어는 인간적 성장에 긴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화 증후군이 난무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언어적 소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국어교육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중등을 관통하고 국어교육의 영역(과목) 전체를 아우르는 성찰언어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성찰언어를 부끄러움에서 비롯되고 윤리적 가치와 주로 결부되는 반성형 성찰, 의아함에서 비롯되고 인식론적 가치와 주로 결부되는 통찰형 성찰, 미흡함에서 비롯되고 주로 심미적 가치와 결부되는 수행형 성찰로 분류한 다음 그 위계성을 고찰하였다.

최근 행복교육이 화두다. 행복교육을 국어교육 버전으로 바꾸면 ‘행복한 국어생활’일 것이다. 행복한 국어생활을 다시 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 ㄱ)의 용어로 바꾸면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생활)’<sup>36)</sup> 정도가 될 것이다. 품위와 개성이 있는 국어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의 양성을 국어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은 지당하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품위 있고 개성이 있는 국어생활에는 성찰언어가 필수라는 점이다. 품위 있는 국어생활은 성찰을 통해 윤리적·인식론적·심

36) 2015 국어과 교육과정 ‘2. 목표’의 전문(前文)에 서술된 표현이다(교육부, 2015 ㄱ: 4).

미적 가치가 실현될 때 가능하고, 개성 있는 국어생활 또한 성찰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언어가 자기다운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22.04.21 투고되었으며, 2022.05.14 심사가 시작되어 2022.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서희(2021), 「문학교육에서 학습독자의 정서 성찰을 통한 윤리적 가치 함양 교육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83, 293-315.
- 고혜원(2014), 「성찰적 글쓰기의 과정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 『어문론집』 60, 7-31.
- 교육부(2015ㄱ),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5ㄴ), 『도덕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김도남(2007), 「성찰적 읽기 교육의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28, 239-274.
- 김무규(2012), 「소통을 위한 성찰-체계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본 성찰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8-2, 178-200.
- 김열규(1997),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서울: 사계절.
- 김창원(2019), 「기रो에 선 국어교육-‘국어’ 교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국어교육연구』 70, 69-104.
- 김홍중(2007), 「근대적 성찰성의 풍경과 성찰적 주체의 알레고리」, 『한국사회학』 41(3), 186-214.
- 민병곤·박성석(2017), 「대화 성찰 태도 측정을 위한 설문도구 개발」, 『국어교육학연구』 52(4), 303-342.
- 민재원·구영산(2018), 「시 읽기 교육에서 성찰의 주체 형성 방향 연구」, 『문학교육학』 58, 73-109.
- 박성석(2018), 「대화 성찰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세원(2009), 『존재의 성장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민·최숙기(2008), 「반성적 쓰기가 중학생의 설명문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어교육』 125, 137-161.
- 박은주(2021), 『한나 아렌트, 교육의 위기를 말하다』, 경기: 빈빈책방.
- 신도현·윤나래(2018), 『말의 내공』, 서울: 행성B.
- 양혜성(2020), 「민주시민 역량으로서 반성적 성찰의 교육 방안 연구」, 『도덕윤리교육연구』 67, 207-226.
- 오인탁(2001), 「홀리스틱교육과 행복한 교육-홀리스틱 교육의 본질과 도전을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5(2), 1-10.
- 이성영(2021), 「공감적 읽기의 필요성과 방안」, 『독서연구』 60, 9-35.
- 이숙정·신정혜(2014),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여대생의 Self-authorship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809, 337-374.
- 이연수(2011), 「초등학생용 자기성찰 척도(SRS) 개발 및 타당화」, 『초등도덕교육』 35, 157-188.
- 이오덕(2017), 『이오덕의 글쓰기』, 서울: 양철북.
- 이용민·이승철(2017), 「유교 인성교육론의 현대적 이해를 통한 ‘성찰(reflection)’의 원리」,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597-611.
- 이정우(2009),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 한길사(편), 『담론과 성찰1』, 경기: 한길사.
- 장지혜(2020),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호승(2006),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서울: 비채.
- 조금호(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4), 21-53.
- 최인철(2018), 『굿 라이프: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경기: 21세기북스.
- 최홍원(2008),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래희(2014), 「자기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20, 335-378.
- 황규호(2017), 「행복 교육의 주요 쟁점과 과제」, 『도덕교육연구』 29(3) 1-27.
- 황주연(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 간의 경로모형 검증」, 가톨릭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rendt, H.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역), 경기: 한길사(원서출판 1963).
- Melchior-bonnet, S. (2001), 『거울의 역사』, 윤진(역), 서울: 예코리브르(원서출판 1994).
- Nussbaum, M. C. (2015), 『감정의 격동』, 조형준(역), 서울: 새물결(원서출판 2003).



## 성찰언어의 교육 필요성과 유형

이성영

성찰언어는 인간적 성장에 긴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화 증후군 등 사회적 문제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언어적 소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국어교육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중등을 관통하고 국어교육의 영역(과목) 전체를 아우르는 성찰언어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찰언어는 부끄러움에서 비롯되고 윤리적 가치와 주로 결부되는 반성형 성찰, 의아함에서 비롯되고 인식론적 가치와 주로 결부되는 통찰형 성찰, 미흡함에서 비롯되고 주로 심미적 가치와 결부되는 수행형 성찰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세 유형은 시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서로 내포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복잡성 정도에 따라 반성형 성찰 → 통찰형 성찰 → 수행형 성찰로 학습 순서를 정할 수 있다.

**핵심어** 성찰, 성찰언어, 반성, 통찰, 수행, 가치

## The Educational Necessity and Types of Reflective Language

Lee Seongyoung

Teaching reflective language is necessary as it is a key point of human growth, countermeasure against social problems, and mechanis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nguistic communication. However, it has as yet not been sufficiently implement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us, we must organiz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reflective language.

There are three types of reflective language.: The repent-type comes from a sense of shame, combined with ethical value; the insight-type comes from a sense of curiosity, combined with epistemological value; the performance-type comes from a sense of dissatisfaction, combined with aesthetical value. These three types can overlap, allowing us to establish the order in which they are learned: repent-type → insight-type → performance-type.

**KEYWORDS** Reflection, Reflective Language, Repent, Insight, Performance, Value